

8월18일 신명기 17장 14-20절

제목: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왕을 세우거든 /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요약: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세우는 것은 선택이지만 왕이 지켜야 할 것들은 필수적임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에서 마지막에 위치하며 뒤에 오는 역사서와의 연결 고리를 제공합니다. 신명기에서 주어진 율법과 규례들이 과연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에 대한 결론은 신명기 다 음에 나오는 역사서에서 제공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며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세웠습니 다.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정정치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 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도는 주변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왕정 정치 제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왕이 있더라도 왕 역시 신정정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왕의 임무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왕을 세울 수 있다고 하시며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번째는 세워질 왕은 하 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세울지, 세우지 않을지는 이스라엘이 선택하지만 누구를 세울지는 하나님이 정하겠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주체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왕은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군사력을 의미하는데 다른 이방 나라는 말과 병사를 많이 두어 군사력에 의지하여 전쟁을 준비한다면 이스라엘을 군사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이 해서는 안되는 두번째 행동은 여자를 많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왕의 마음이 하나님 으로 돌아서서 다른 우상을 향하게 할 수 있음을 염두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번째로 왕 이 해서는 안되는 것은 '은과 금을 매우 많게'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정량의 부를 넘어 과도한 재산을 가지는 것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우상을 제작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 이 해서는 안되는 세가지 말, 여자, 재산을 많이 두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유 혹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해야하는 임무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율법을 기록하며 평생토록 읽고 지키 기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왕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그 경 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신정정치의 대리인으로 왕이 해야 하는 임무였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왕 자신이 가장 높아 보 일 수 있지만 율법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왕이 율법을 읽고 순종할 때 오는 결과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 이 장구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왕이 조건들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누리지만 아닐 시에는 위험이 따를 것을 말씀하시며 왕을 세우는 선택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노력이 필 요함을 알게 하십니다.

8월 25일 신명기 25장 17-19절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 기억하라

요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백성과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간과한 아말렉의 최후를 기억하라 하신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던 때에 출애굽 행진에서 지쳐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며 아말렉의 모든 흔적을 없애라고 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보면 홍해를 지나고 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워 군대를 이끌게 하여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했는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모세의 팔을 옆에서 붙들어 주었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됩니다. 이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기억은 존재를 뜻하는 '이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말렉을 나타내는 모든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광야에서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들이 먼저 친 대상은 행진의 뒤에 위치한 약하고 지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특히 약한 자를 공격을 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백성을 향한, 그리고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한 아말렉의 최후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은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에 대한 심판을 드러냅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과도 비슷하여 절기인 부림절 직전에 이 본문이 해마다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공급하심을 누리는 백성들에게 이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약자를 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들의 최후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복들을 누리는 우리 또한 허락하신 평안과 채우심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9월1일 (신명기 30장 1-10절)

제목: 우리의 불신앙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복과 저주 / 마음의 할례

요약: 하나님의 언약적인 자비는 우리를 저주에서 회복시키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본문에 앞서 27장에서 29장까지 모세는 언약을 지킴으로 얻는 복, 그리고 지키지 않을 경우 닥칠 재앙에 대해 설명하는데 약속에 땅에서 하나님이 모압에서 주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부정적인 전망으로 봅니다. 그들이 약속을 성실히 지키지 못하여 쫓겨났을 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언약의 복은 주시고 그들로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며 이들이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못할 것을 전제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은 앞서 기록된 4장의 내용과 유사한데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망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될 것이며 후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장에서도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에 근거하는데 이를 위해 포로 중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적 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으로 언약적 저주를 내리기는 하시지만 결코 언약을 파기하거나 백성들을 파멸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로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를 이끌어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처와 나라와 모든 것을 다 잃은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언약 안에서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갈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신명기 30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부정적인 전망으로 보면서 시작하지만 결국엔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자비를 드러내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줍니다. 인간과 인간 공동체의 본성적인 어두움은 언약 관계에서 불성실함을 낳지만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언약적 자비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때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신약에서는 세례가 육에 대해 죽고 약속으로 인해 생명이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뜻에서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로 인해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불성실함은 언약을 떠나게 하고 저주에서 스스로를 회복시킬 능력도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보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육으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진 생명의 삶을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